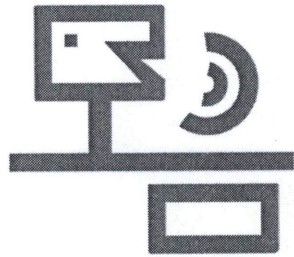


당신의 목소리를 울림으로



연세대학교 제29대 총여학생회

1차 LT

인권감수성 세미나 자료

초안 제작: 황수연 (제29대 총여학생회 '모음')

검토: 송새봄, 이수빈

참고: 전북대학교 성소수자모임 열린문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한 기초 세미나' 자료, 페미위키, 전주퀴어 문화축제 자원봉사자 교육자료, 연세대학교 장애인권위원회X게르니카 '장애인 비하표현 정리'

목차

I. 여성혐오.....	3
II. 정체성 및 성별.....	5
III. 신체 및 장애.....	9
IV. 국가 및 지역.....	11
V. 사회경제적 지위 및 가족형태.....	13
VI. 채식.....	15
VII. 폭력.....	16
VIII. 내부문화 성찰.....	17

I. 여성혐오

〈OX퀴즈〉

1. 여성은 여성혐오를 저지르지 않는다. (X)
2. 여성을 좋아해서 저지르는 몰카, 성희롱 등은 여성을 혐오하여 저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혐오'가 아니다. (X)
3. 약속자리에서 남자가 돈을 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을 주는 것은 페미니즘의 영향이다. (X)
4. 남성은 강하고 이성적이며, 여성은 약하고 감성적인 존재이다. (X)

1. 여성혐오의 개념

여성혐오의 핵심 개념은 여성에 대한 혐오나 비하가 아니라,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열등한 존재 · 위험한 존재 또는 아름다운(아름답기만 한) 존재 등으로 여기는 일체의 일반화, 대상화, 타자화이다. 여성의 다른 능력과 주체성과 가치를 지워버리고, 오로지 남성의 시각으로 여성을 재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에게 '여자다움'을 기대하는 남성이나, 스스로 '여성스러움'의 잣대를 세워 자기검열을 하는 여성 또한 여성혐오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2. 여성혐오의 양상

1. 교묘한 차별적 행위: '여성스러움'을 강요하는 언행 등. ex) 여성은 섬세하고 상냥하다
2. 직접적 차별과 편견적 행위: 이대녀, 김치녀, 메갈 등의 단어
3. 구조적 차별: 기울어진 운동장, 유리천장, 임금격차
4. 폭력적 행위: 데이트 폭력, 성희롱, 성폭력 등
5. 개인에 대한 극단적/물리적 폭력 행위: 강남역 여성표적살인 등
6. 제노사이드(페미사이드): 여성에 대한 집단적 폭력과 살해. 80~90년대 여아낙태 등

3. 관련 개념

1) 강간문화(Rape Culture)

- 강간이 만연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 미디어나 대중문화에서 용인되거나 정상으로 간주되는 환경
- 성역할 강화, 가해자에 대한 묵인, 강간의 소비, 피해자에 대한 비난, 피해자 배제 등

2) 가부장제

- 남성이 가정의 우두머리인 가부장이 되어 가족구성원을 지배하고 나아가서는 사회구성원에 대한 지배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권력체제로, 사람들의 습관, 문화, 성 등의 일상적인 영역에까지 깊게 침윤되어 있는 관습이자 이데올로기. 개별 가족 구성원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연소자와 여성에 대한 남성 지배를 지지하고 구조화하는 체제

2월 20일 160. 8
기대 90.



3) 코르셋

- 여성이 스스로를 억압하는 물리적, 정신적인 것들. 여성은 폭력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사회적인 여성성을 강화하려고 스스로 코르셋을 쓰게 된다. 코르셋 자체가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이자 여성혐오이다.

4) 맨박스

- 가부장제 하에서 남성에게 씌워지는 억압, 즉 '남성이 남성다울 것' 을 강요하는 것.
- 남성성 강조는 결국 사회적인 남성성에서 벗어나는 남성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 여성혐오

5) 맨스플레인

- 남성이 여성이 그 분야나, 그 주제에 대해 모를 것이라고 가정하고 그 분야에 대해 설명하는 행위

✓ 6) 가스라이팅

- 상황조작을 통해 타인의 마음에 자신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듦으로써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황폐화시키고 결국 그 사람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심리학 용어.

- 피해자로 하여금 자기 본연의 감정, 본능, 온전한 사리분별능력 등을 의심하게 하는 극단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감정적 학대(권력과 통제)

- 양상

거부: ex) 지긋지긋해. 더는 듣고 싶지도 않아. 그런 얘기 그만 좀 해.

반박: ex) 네 말은 완전 틀렸어. 네 기억은 틀렸어.

전환/쳐내기: ex) 뻔해, 이거 또 oo한테 들은 말도 안되는 헛소리네. 왜 네 멋대로 생각해?

망각/부인: ex) 내가 언제? 말 좀 지어내지 마.

- 사회적 가스라이팅: 사회가 더이상 통상적 폭력을 용인하지 않을 때, 가해자가 그것을 대체해서 가하는 폭력의 수단으로서의 가스라이팅.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발생하기도 함

ex) 혐오범죄 → 묻지마 사건, 젠더폭력 → 가정폭력, 데이트폭력으로 치환

가스라이팅

7) 함께 얘기해볼 점

①

②

③

II. 정체성 및 성별

1. 성별

〈OX퀴즈〉

1. 신체적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진다. (X)
2. 지정성별은 신체적 성별과 일치하며, 사람들은 태어날 때 매우 정확한 방법으로 성별을 지정받는다. (X)
3. 신체적 성별과 젠더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 (X)

(1) 생물학적 성별 (SEX)

- 자신이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생물학적 성별(biological sex)
- 성기, 성염색체(XX,XY), 생식샘, 성호르몬, 생식기관 등으로 구별

(*성염색체는 XX 이나 성기나 2 차성징이 일어나지 않는 등 다양한 신체를 가질 수 있다.)

- 남성, 여성, 간성(intersex)

1. 생물

(2) 지정성별

- 출생 혹은 최초 인적사항 등록 시에 시스젠더 중심적인 사회로부터 지정 받은 성별이다. 지정성별은 어디까지나 출생 시의 불합리한 성별지정 과정을 지적해내기 위한 어휘이며, 법적 성별과는 다른 개념이다. 또한 겔보기성별(패싱젠더)와 혼동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젠더(Gender)

-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성별 관념, 정신적 성별, 사회적 성별 등
- 가치중립적인 용어이나, 사회가 이분법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젠더 또한 이분법적으로 이해되고, 역으로 이분법적 시각의 틀이 되기도 한다.
- 인지적 · 심리적 · 상징적인 구성물로서 인간이 특정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습득하는 일종의 정체성과 자아에 대한 관념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 집단의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젠더에 대한 정의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2. 성별 정체성 (젠더 정체성, Gender Identity)

〈OX퀴즈〉

1. A와 친해졌는데, 나와 지정성별이 같고, 나보다 나이가 많다면 형 또는 언니라고 불러도 된다. (X)
2. B씨는 지정성별 여성이며, FTM으로 정체화했고, 머리가 굉장히 길다. 또한 원피스를 즐겨 입는다. 이 사람은 FTM인가? (O)
3.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젠더'를 인식하고, 사람을 인식하는 데에 '젠더'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X)
4. 지정성별 남성이 MTF로 정체화한 사람은 젠더위화감(디스포리아)을 겪는다. (X)
5. 트랜스젠더란 성별 정정수술을 받은 사람들을 말한다. (X)

자신을 '어떤 젠더로 느끼는가'와 관련된 개념. 개인이 자신의 젠더에 관한 근본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 또는 특정 짓는 것. 따라서 지정성별과 젠더 정체성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

(1) 젠더 바이너리 (이분법적 젠더, Gender Binary)

모든 사람을 젠더 이분법적 체계에 끼워 넣는 문화에서 주어지는 두 가지 젠더 선택지. 이분법적 젠더는 여성과 남성이며, 젠더 바이너리에 속하는 젠더는 시스젠더와 바이너리 트랜스젠더가 있음.

1) 시스젠더: 지정성별이 여성(남성)이고 성별 정체성이 여성(남성)

2) 바이너리 트랜스젠더: 지정성별이 남성이고 성별 정체성이 여성인 트랜스젠더 여성(MTF)과, 지정성별이 여성이고 성별정체성이 남성인 트랜스젠더 남성(FTM)

* 트랜스 섹슈얼: 지정성별과 젠더가 일치하지 않으며, 자신이 원하는 섹스 및 젠더로 살기 위해 의료적 조치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 트랜스 섹슈얼은 트랜스젠더에 포함되지만, 트랜스젠더 중에는 수술이나 의료적 조치를 원치 않거나 받지 않는 사람도 존재한다.

(2) 젠더 논바이너리 (Gender Non-binary)

젠더 이분법적 체계에 들어맞지 않는 젠더. 젠더 바이너리 둘 중 하나에 완벽하게 대응되지는 않는다. 다만, 일부 논바이너리는 일부중에서지만 젠더 바이너리에 해당하는 젠더 한쪽, 혹은 둘 다로 정체화할 수 있다.

Ex) 에이젠더, 젠더리스, 그레이젠더, 데미젠더, 안드로진, 뉴트로이스, 바이젠더, 젠더플루이드, 팬젠더 등

(3) 젠더/성별표현

자신의 성별정체성 혹은 그와 연관된 정체성을 드러내는 방법, 그리고 특히 그 중 사회의 성별관념과 연관되는 것. 사람마다 다양하고 고유한 방식으로 드러나며, 특정한 신체적 특징을 갖고 싶은 욕구, 패션 스타일, 사람들 사이의 호칭, 선호하는 문화적 코드, 행동 양식, 성역할 등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성별표현만 보고 성별정체성을 선불리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4) 젠더 디스포리아 (성별불쾌감, 성별위화감)

개인의 성별정체성이 출생 당시 지정된 성(과 해당 성에 부여된 성역할 내지 상징)과 어긋남으로써 느끼는 불편함이나 고통. 자신이 경험한 성이나 사회적인 성과 발현된 성 사이의 불일치감에서 유래되는 불쾌감.

이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젠더 디스포리아를 해소하기 위하여 젠더의 옷, 이름, 성 역할을 갖추며, 성전환 수술을 받기도 한다. 트랜스젠더퀴어를 포함한 모든 트랜스젠더가 젠더 디스포리아를 겪는 것은 아니다.

(5) 젠더 블라인드 (Gender-blind)

젠더를 보지 못한다는 뜻으로 ~~흔히~~ 성별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다.

3. 성 지향성(Sexual Orientation) 및 로맨틱 지향성(Romantic Orientation)

〈OX퀴즈〉

1. 성지향성과 로맨틱지향성은 독립적이다. (◯)
2. 연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로맨틱으로 정체화한다. (✕)
3. 다수의 사람들에게 로맨틱 끌림을 동시에 느끼면 이상한 것이다. (✕)
4. 섹스라면 몰라도 연애는 모두의 관심사이다. (✕)
5. 에이섹슈얼은 섹스나 결혼을 하지 않는다. (✕)
6. 헤테로로맨틱이면서 호모섹슈얼일 수 없다. (✕)
7. 정체화는 일생에 한 번만 하는 것이다. (✕)
8. A는 나에게 커밍아웃했다. 따라서 나는 B에게 A의 성 지향성을 말할 수 있다. (✕)

(1) 성 지향성, 성적 지향, 성적 지향성: 성적으로 끌리는 상대의 성별과 자신의 성별과의 관계

Ex) 에이섹슈얼, 그레이(에이)섹슈얼, 데미섹슈얼, 헤테로섹슈얼, 호모섹슈얼, 바이섹슈얼, 팬섹슈얼(=옵니섹슈얼), 폴리섹슈얼, 모노섹슈얼, 안드로섹슈얼, 진섹슈얼, 헤테로/호모 플렉시블, 쿠피오섹슈얼, 프레이섹슈얼, 오토섹슈얼 등

(2) 로맨틱 지향성: 감정적 끌림의 대상이 되는 성별과 자신의 성별과의 관계.

Ex) 에이로맨틱, 그레이(에이)로맨틱, 데미로맨틱, 헤테로로맨틱, 호모로맨틱, 바이로맨틱, 팬로맨틱(=옵니로맨틱), 폴리로맨틱, 모노로맨틱, 안드로로맨틱, 진로맨틱, 헤테로/호모 플렉시블, 쿠피오로맨틱, 프레이로맨틱, 오토로맨틱 등

(3) 정체화 및 재정체화

- 자신의 정체성을 어떠한 것으로 규정할 때 쓰는 말이다.
- 정체화는 본인이 주체가 되어 하는 것으로, 함부로 남의 정체성을 규정해선 안 된다.
- 본인이 느끼기에 정체성의 변화가 있다면 재정체화를 할 수 있다.

(4) 아웃팅과 커밍아웃

1) 아웃팅: 성소수자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대해 본인의 동의 없이 밝히는 행위

2) 커밍아웃: 성소수자가 스스로 자신의 성적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말함

(5) 주의할 점들

— 성 지향성과 로맨틱 지향성은 독립적인 영역이며,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 지향성은 개인의 기호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취향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

— 지향성에 관계 없이 개인이 하는, 하길 원하는 관계의 모습은 다양할 수 있다. 특히 모두가 '사랑', '연애', '일대일 독점적 관계'를 최고의 가치로 두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관계나 사랑의 모습에 대해 일반화하거나 어떠한 당위성을 부여하는 것, 대화가 지나치게 연애중심적으로 흘러가는 것은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

— 퀴어 사이의 아웃팅, 친밀한 공동체 내에서의 아웃팅 위험에 주의해야 한다.

(6) 함께 생각해볼 점들

1) 페미 X 퀴어

III. 신체 및 장애

1. 장애

〈OX퀴즈〉

1. 장애인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다. (X)
2. 자폐성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특정 분야에서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X)
3. 장애 발생 원인 중 후천적인 원인이 선천적인 원인보다 많다. (O)

손상은 장애로 즉시 이어지지 않는다. 안경을 바라보는 시선과 휠체어를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는 휠체어를 타야 하는 장애가 더 심각해서가 아니라, 대상화하는 시선의 차이다. 누가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는가, 누구를 장애인으로 지정할 것인가는 사회의 몫이다. 휠체어를 타야 하는 신체조건 때문에 장애인이 아니라, 휠체어를 바라보는 시선과 휠체어를 고려하지 않은 비장애인 중심적 사회의 디자인이 장애인을 만든다.

— 장애의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 기능적 제한, 환경, 태도

(1) 장애에 대한 혐오(Ablism)와 조심해야 할 표현

- 장애우: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장애인을 타자화하는 표현
- 일반인/정상인 → 비장애인
- 비하용어: 병신, 애자, 장애자, 불구, 난쟁이, 고자, 절름발이, 병어리, 귀머거리, 장님, 합죽이, 문둥이, 꼽추, 언청이 등 (원)
- 비하표현: “제 눈이 잘못된 건지” 등
- 정신지체 → 지적장애: 정신지체는 정신의 발달이 유전적 또는 후천적 질병으로 뒤쳐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정신지체’라는 표현은 장애인의 지적능력 차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을 양산한다.
- ‘결정장애(선택장애)’
- 장애를 앓고 있다 → 장애를 가지고 있다.
- 엽사, 얼굴 몰아주기

2. 질병에 관한 혐오

질병은 대부분의 경우에 쉽게 대상화, 희화화되고 사회로부터 소외, 배제되거나 부정적 낙인으로 소비된다. 이는 개인이 본인의 손상이라는 특질을 부정하게 만든다. 손상은 개인에게 강제성이 될 수 있는 특질이므로, 이를 부정하는 것은 개인의 정체성과 존재를 부정하는 맥락으로 이어진다. 또한 건강에 대한 환상은 질병을 손쉽게 개인화하여 질병에 대한 사회적인 맥락과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기도 한다. 따라서 건강을 이상화하여 이를 인간의 기본 상태로서 취급하고 질병을 대상화하는 행위를 경계하여야 한다.

(1) 조심해야 할 표현

- “페미는 정신병이다”, “정신병자 아니야?” 등의 정신질환 혐오
- 지랄, 염병 등
- 또라이, 멍청이, 싸이코 등
- 에이즈에 대한 질병혐오 및 에이즈 환자에 대한 편견들

과잉

3. 신체와 관련된 대상화의 문제

〈OX퀴즈〉

1. ‘예쁘다’라는 말은 칭찬이므로 누구에게나 해도 된다. (X)
2. 성적 매력을 칭찬 받는 것은 누구에게나 즐거운 일이다. (X)
3. 동성끼리는 외모에 대한 칭찬, 조언을 할 수 있다. (X)

외모, 외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 칭찬들은 상대방을 대상화하고, 평가 및 판단하려는 의도가 포함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또한 어떤 기준점이 생겨 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1) 조심해야 할 표현

- 얼굴이 예쁘다. 몸선이 예쁘다. 살 빠졌네. 비주얼 담당 등
- 비만 혐오
- 저 사람은 누가 봐도 못생겼다, 객관적으로 이쁘다 등 외모에 대한 기준점을 만드는 표현들

IV. 국가 및 지역

1. 국가

〈OX 퀴즈〉

1.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사는 동네는 치안이 안 좋다. (X)
2. 다문화가정이란 동남아 여성들과 한국인 남성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한다. (X)
3.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저학력/저숙련 노동자다. (X)

인정광년.

(1) 인종주의: 인종차별 또는 인종주의는 다른 인종에 대한 우월감에 기반한 편견, 차별, 적개심을 의미한다. 인종, 피부색, 혈통, 출신 국가, 출신 민족에 근거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타 공공생활 영역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제거하거나 손상시킬 목적으로 행해진다. 또한 인종을 나누는 기준은 무의미하며, 사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도 존재함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2) 외국인(나라)에 대한 혐오: 외국인 또는 이민족 집단을 혐오, 배척이나 증오하는 것을 말한다. 제노포비아(Xenophobia)라고도 한다.

(3) 혼혈에 대한 혐오: 혼혈인 사람을 이방인/주변인으로 바라보고 배척하려는 태도로, 인종차별과 관련하여 대상화와 차별이 일어날 수 있다.

(4) 조심해야 할 표현

- 살색, 스킨색

- 백형, 양키, 양놈, 코쟁이, 백마, 흑형, 까둥이, 흑마, 원숭이 등

-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 백인과의 혼혈 가정은 다문화가정이라고 부르지 않고, 유색인종에게만 '다문화가정'이라는 호칭을 사용함.

- 동남아 사람들에 대한 비하 발언 및 희화화

- 혼혈에 대한 혐오: 혼혈렌즈

- 특정 국가에 대한 편견 및 혐오: 중국(짱개, 중국집, 짱꼴라, 냄새난다 등)과 일본(쪽바리, 왜놈, 겉속이 다르다 등) 등

- 서양인들이 전부 영어를 할 줄 알 것이라는 편견 = 동양인들이 전부 중국어를 쓴다는 편견

- 외국어 발음 따라하기,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기

-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에게 "외국인 아닌 것 같다", 영어를 잘하는 한국인에게 "영어 어디서 배웠냐, 잘하네" → 언어와 국가 사이에 연관성이 있긴 하지만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ex) 한국계 미국인 클로이 김 → 한국인이 아니라 미국인임. "Where are you 'really' from?"

- ex) 평창올림픽에 참가한 아프리카 국가 선수들에게 "눈을 본 게 처음일텐데요"

- 특정 인종은 특정 국가 국민일 것이라는 가정 ex) 모델 한현민

2. 지역 혐오

지역 혐오.

〈OX 퀴즈〉

1. XX 지역에서 온 사람에게 특정 사투리를 해달라고 해도 괜찮다. (X)

특정 지역을 나누어 차별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혐오는 특정 지역에서 거주하고 생활하는 것으로 나누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에 기반한다. 따라서 특정 지역에 대해서 선부른 일반화와 편견을 만들어낸다.



(1) 조심해야 할 표현

- 광주(흥어), 충청도(특유의 억양 희화화), 전라도(전라디언, 라도, 손상님, 갱갱이, 빨갱이), 고담대구, 마계인천, 갱스오브부산, 서울(각쟁이) 등 각 지역에 대한 일반화와 편견을 내포한 언어들 왜냐?
- 지역의 특산물을 가지고 희화화 하는 것: @@에는 @@ 있어요? 강원도 사람은 감자가 주식이에요? 전주 사람이라 비빔밥 좋아해요? 등
- 사투리를 따라하며 희화화 하는 것
- 평창스럽다, 평창 났다
- 지역에 대한 비하적/자조적 발언: 지방러, 지잡대 등

한글

V. 사회경제적 지위 및 가족형태

1. 나이주의 (Ageism)

〈OX 퀴즈〉

1. A 가 나보다 어린 것을 알고, A 도 내가 A 보다 나이가 많다는 것을 알면, A 에게 반말을 해도 괜찮다. (X)
2. 청소년들의 정체화는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X)
3. B 는 나보다 나이가 많다. 따라서 B 에게 언니라고 부르는 것이 좋다. (X)

나이에 따른 학년, 나이를 중심으로 하여 어떤 사람의 특성을 선불리 규정하고 그 규정을 바탕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

(1) 성인주의

성인주의는 청소년에게 자신의 나이가 더 많다는 이유로 특권이나 권력을 행사하는 행위이다. 내면적, 제도적, 문화적 성인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내면적 성인주의는 체벌, 성적 학대, 청소년 방문을 금지하는 매장 정책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포함된다. 제도적 성인주의에는 참정권 제한, 음주·흡연 연령 제한, 통금 시간, 의료 서비스 이용 등이 있으며, 단지 어린 나이 때문에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문화적 성인주의는 훨씬 더 모호하지만, 청소년에 대한 차별이나 편협의 형태이며, 아동 학대, 사춘기 성관계, 온라인 필터 등이 있다. 그들의 능력, 이해력, 또는 능력과는 대조적으로, 어린 나이를 근거로 한 사람들의 제한이나 착취도 성인주의라고 할 수 있다.

(2) 연소자 혐오

1) 청소년 혐오

– ‘성인’을 완성된 혹은 성숙한 존재로 보고 이에 비해 청소년을 미흡한 주체로서 대하는 것. 따라서 이들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한다. 그리고 비청소년과 청소년의 차이를 강조하여 청소년을 통제하고자 하는 모든 행위와 관념을 말한다.

– 청소년혐오는 청소년을 비하, 경멸하고 공포스러운 타자로 간주하는 문화를 말한다. 청소년에 대한 비하와 경멸은 일상에서 만연하게 드러나며 청소년의 권리를 제한하는 제도를 정당화한다.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유독 나이를 강조하여 ‘무서운 십대들’ 이라고 수식하는 언론, 청소년을 통제하기 위해 폭력적인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들, 청소년이 길에 모여만 있어도 무섭다고 반응하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 드러나고 재생산된다. 청소년혐오는 청소년 억압을 정당화하는 데 근거에 깔린 사회적 감정이며, 나이에 따라 권리와 자원을 차등 배분하는 나이주의의 양상이다.

2) 아동혐오: 아동을 이분법적으로 대상화하며 불완전한 인간이나 소유물로서 취급하고, 이들의 발달에 필요한 사회적 지지를 반대하는 모든 행위와 관념을 말한다.

Ex) “요놈 꼬추 좀 보자!” 등

(3) 노인 혐오

노인은 힘이 없고, 지적 및 성적 능력이 떨어지며, 존중하기보다 부양해야 하는 짐처럼 취급하는 것.

(4) 조심해야 할 표현

- 미성년자: 성인을 기준으로 만든 단어로, 성년이 아닌 사람을 완성되지 못한 존재로 가정한다. 사회구조적으로 청소년이 약자이므로 청소년으로 지칭하는 것이 좋다.
- 급식충: 급식을 먹는 초중고교생을 비하하는 말.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을 배제한다.
- 초글링, 중 2 병, 애새끼들, '애들은 때려야 말을 듣는다' 등
- 초딩 출입금지, 중고딩 강제퇴장, 노키즈존
- 어른스럽지 못하게, 애들같이, 나잇값, 어린 티 난다, 요즘 것들
- 툭딱

2. 기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

(1) 학벌주의

〈OX 퀴즈〉

1. 18 살이면 고 2 이다. (X)
2. 연세대학교 학생들은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인재다. (X)

출신 학교의 지위를 중요하게 여기고 개인의 재능이나 능력은 고려하지 않는 것. 초졸, 중졸이나 고졸, 혹은 검정고시 졸업자나 특성화학교의 재학생, 야간대학교 학생을 차별하거나 대학 이름만으로 차별하는 행위 등을 지양해야 한다.

(2) 가난혐오

개개인의 경제상황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고, 가난하지 않은 상황을 기본값으로 두고 가난을 희화화하거나 비하하는 태도. 또한 가난을 벗어나야 하는 상황, 벗어나고 싶은 상황으로 여기는 태도를 말함.

Ex) 지갑에 3000 원도 없니?

(3) 직업에 따른 혐오와 차별: 어떤 직업을 무시하거나 차별하여 여기는 태도

Ex) 공돌이/공순이, 그런 애들이 커서 중국집/치킨집 배달부 되고 그러죠.

3. 가족 형태

가족의 형태는 다양하나 어머니, 아버지,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만을 '정상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가정형태 속에서 살고 있다고 여기는 것. 또한 가정의 '화목함'을 기본값을 두는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폭력적일 수 있다.

VI. 채식

1. 채식

- 기본적으로 동물성 식품 대신 식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섭취하는 식사의 형태를 말하나, 식물성 식사를 기본으로 특정 군의 동물성 식품을 섭취하는 것 또한 채식이라고 지칭된다.

ex) 페스코, 락토-오보, 플렉시테리언 등

- 다만 일부 동물성 식품을 섭취하는 것 또한 기본적으로 채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존재할 수 있다.

- 개인은 기호, 신념, 종교, 건강 등의 각기 다른 이유로 채식을 한다.

2. 비거니즘 (Veganism)

- 식품뿐만 아니라 동물과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 전부를 거부하는 양식이다. 이는 주로 개인의 신념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ex) 육류, 유제품, 꿀과 같이 동물이 생산하거나 사용된 음식, 동물의 털과 가죽 등으로 만들어진 의류, 동물 실험이 가해진 화장품, 승마, 동물원, 서커스 등 동물을 착취하는 놀이 문화 등

3. 여성주의와 채식주의

- 하나의 의제로서 채식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의 의제로서 여성주의를 말하는 이유와 유사하다. 기존의 가부장적 체제가 지배하는 사회 문화 속에서 여성이 억압 받아왔듯이, 육식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화 아래 채식하는 사람들의 선택권이 억압 당하고 있으며 다양한 폭력이 자행되어 왔다. 육식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가기 위해 비인간 동물들을 착취하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축산, 양식업 등이 발전해왔다는 사실 또한 고려해보아야 할 지점이다. 사회를 구성하는 권력 구조의 하층에 위치한 존재들이 상층의 존재들로부터 끊임없이 억압 당하고 있는 것이다.

4. 조심해야 할 표현

- 식물은 안 불쌍해? 식물 살생을 멈춰주세요!
- 고기 못 먹어서 어떡해 안됐다.
- 고기를 먹어야 건강하지!
- 너 때문에 다른 데(뒤풀이 등에서 특히) 가야겠네.
- 강권하는 것, 동정하는 것 등



VII. 폭력

1. 폭력

폭력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단어의 뉘앙스와는 다르게, 여러 관계와 상황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표출된다. 일반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폭력의 발현방식 등에 따라 분류하고 다룬다.

2. 피해자 중심주의

많은 경우에 폭력은 사회적인 권력의 차이에 의해 위계적으로 발생한다. 사회적 관성은 이 권력관계에 순응하여 구조를 유지하고자 하고, 이는 피해-가해 구도에서의 피해자를 배제하고 고립시키는 일련의 분위기로 이어진다.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개념은 이러한 원리로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의 존재를 지우고, 폭력을 은폐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생겨났다.

폭력이 발생한 상황을 이해할 때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파악하며 피해자의 치료와 안정을 최우선하고 나아가 불평등한 구조를 직시할 수 있도록 돕는다.

3. 가해자의 악마화

- 가해자 개인을 악마화하여 사회 혹은 공동체의 문제를 덮는 경우, 가해자 개인을 악마화함으로써 개인의 일탈 또는 잘못으로 돌려 공동체의 성찰을 방해한다. 또한 가해자를 공동체에서 방출함으로써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들어 가해자의 성찰 및 그에 따른 사회로의 재편입과 공동체의 자정을 막는다.

- “나는 저런 악마가 아니야”, “내가 어떻게 저 사람과 같은 성범죄자야?” 등 누구나 폭력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든다.

4. 조심해야 할 표현

- 위협적인 말하기, 행동: 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유발시킬 수 있고, 그 자체로도 누군가에게 위협적인 폭력의 경험으로 남을 수 있음을 항상 유의할 것

- 저거 맞아야 할 정신차리지, 죽을래? 맞을래?

- 동의 없는 접촉 등의 강요행위

-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 피드백을 원활하지 않게 만드는 분위기.

* 권력관계를 명확히 규정할 수 없고, 친밀한 관계이더라도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 누구도 하나의 위치, 하나의 정체성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여러 층위에서 항상 자신의 위치성을 인식하고 성찰하는 태도를 필요로 한다.

VIII. 내부문화 성찰

1. 내부문화 피드백

2. 자치규약 다시보기

〈모음 자치규약〉	〈새로 쓰는 모음 자치규약〉
- 쓰레기 버리지 않기 - 전기 절약 (에어컨, 난방) - 회의할 때 존댓말 사용하기 - 욕설/비속어 사용하지 않기 - 회의 일정/시간 잘 지키기 - 공지방 확인 잘 하기 - 회의록 읽기 (불참 시 필수) - 재실 업무 + 외부인 출입 관리 - 사비 지출 지양하기 - 술 없는 뒤물이 - 요구와 거절을 확실하게 하기 - 매주 내부문화 피드백하기	

3.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해나갈까요?

1) 업무분담

2) 회의 참여